

##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우 해 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 인 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 기초한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여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는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여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개인 특성 정보는 물론 부부 특성 정보 또한 고려하였다. 본 연구가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 전체 부부 소득 대비 아내 소득의 비율, 취업 형태 등 다양한 경제활동 관련 정보들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이들 변수들이 혼인 해체와 유의하게 연관된 경험적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또한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혼인 해체 현상의 경우 교육수준과 유의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남성(남편) 교육수준의 경우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유의하게 낮은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여성(아내) 교육수준의 경우 분석 결과는 교육수준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이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거 결혼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높은 패턴을 보였지만, 최근 결혼코호트로 진행될수록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는 혼인 기간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는 혼인 기간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수준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수준별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주요 용어: 부부, 교육수준, 경제활동, 혼인 해체

\* 교신저자: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haebongwoo@kihasa.re.kr)

■ 투고일: 2017.7.31    ■ 수정일: 2017.9.13    ■ 게재확정일: 2017.9.22

##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족 관련 분야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으로 여성(특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이혼율 증가 패턴이 지적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이혼율이 같은 방향성을 보임에 따라 이들 두 현상 간의 관계가 학술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Greenstein, 1990; Ruggles, 1997a).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현상은 인구변천과 이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동과도 관련이 있다.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과정에서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적은 출산 횟수를 통해서도 개인들이 원하는 출생아 수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러한 재생산 과정의 효율성(reproductive efficiency)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한편 기혼 여성의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된 것이다(Reher, 2011). 참고로, Lee(2003)에 의하면 1800년경의 여성들이 전체 생애의 약 70%를 출산/양육에 보낸 것에 비해 인구변천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비율은 대략 14%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구변천 과정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현상은 후속적으로 여성의 교육 기회 및 지위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이혼율이 공통적으로 증가 패턴을 보임에 따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결혼의 안정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Bernardi & Martinez-Pastor, 2011; Cooke & Gash, 2010; Greenstein, 1990; Jalovaara, 2013; Kalmijn, Loeve, & Manting, 2007; Kalmijn & Poortman, 2006; Rogers & DeBoer, 2001; South, 2001; Sayer & Bianchi, 2000; South & Spitze, 1986; Teachman, 2010). 이론적으로 이들 연구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기초한 결혼의 이점을 감소시킴으로써 혼인 해체의 개연성을 높인다는 이른바 전문화-교환 모델(specialization-trading model)에 기초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1960~1970년대 기간에 걸쳐 급격한 인구변천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후속적으로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여성들의 삶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70~80% 수준에서 등락을 보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1970년 39.3%에 불과했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에는 51.8%

까지 상승하였다(통계청, 2017a). 자료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15~54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2011년 58.5%에서 2015년 61.1%로 상승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통계청, 2016a).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예컨대, 대학진학률에서의 성별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넘어섰으며, 2016년 기준 남녀 학생 간 대학진학률 격차는 7.2% 포인트 수준까지 확대되었다(통계청, 2017c).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급격한 이혼 증가 현상을 경험하였다. 자료가 활용 가능한 1970년대 이후를 보면 이혼 건수는 1970년 11,615건에서 2003년에는 166,617건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혼 건수는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여 2016년 현재 107,328건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1970년 0.4에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3년에는 3.4까지 상승하였다. 이혼 건수와 마찬가지로 조이혼율 또한 이후 다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016년 현재 2.1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2016b).<sup>1)</sup>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경우에도 이혼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제한적이며(박경애, 2000; 우해봉, 2011; 정기원, 2004), 대부분의 연구들은 혼인 해체를 경험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혹은 혼인 해체가 초래하는 경제적 및 사회심리적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인다(예컨대, 김수완, 2010; 김수정, 2007; 김혜영, 변희순, 윤홍식, 2008; 노혜진, 김교성, 2008; 변희순 등, 2006; 윤홍식, 2010; 이현송, 2008).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해체의 파급 효과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혼인 해체의 발생과 관련된 심층적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수집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혼인 해체와 관련하여 회고적(retrospective) 자료 혹은 센서스와

1) 물론 전반적인 이혼율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집단 간 이혼율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이혼율이 감소 혹은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더라도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계층 간 이혼율 격차는 지속되거나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예컨대, Isen & Stevenson, 2010; Martin, 2006; Raley & Bumpass, 2003; Raymo, Iwasawa, & Bumpass, 2004).

인구동태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한 기존 국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전향적(prospective) 설계에 기초하여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 혼인 해체 과정에서 배우자의 역할이 검토되지 못한 것과 달리 부부 자료(couple data)를 구축함으로써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개인 특성 정보와 부부 특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혼인 해체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도 본 연구는 단순 횡단면적 분석을 넘어 혼인 해체 「여부」와 혼인 해체까지의 「기간」을 동시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최근의 결측치(missing data) 보정 방법(다중대체법)을 활용하여 자료 활용의 효율성 또한 높이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과 관련하여 서론에 이어 제2장 선행연구 부분에서는 혼인 해체,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과 혼인 해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그리고 분석 방법론을 살펴본다. 이어 제4장에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혼인 해체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 중의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이혼율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들 두 현상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미시적 수준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혼인관계의 안정성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가설 중의 하나는 전문화-교환 모델(specialization-trading model)이다.<sup>2)</sup> 전문화-교환 모델은 Becker(1974)에 의해 결혼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으로 정교하게 모형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뒤르켐(Durkheim)이나 파슨스(Parsons)처럼 성 역할 구분이 결혼(가족) 제도의 지속성을 위한 기능적 필수 요건(functional necessity)으로 보는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에서도 그 이론적 기반을 찾을 수 있다(Oppenheimer, 1997; Sayer & Bianchi, 2000). 기본적으로 전문화-교환 모델은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은 상이한 영역(노동시장(생산)/가족(재생

2) 연구자에 따라 그 의미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화-교환 가설은 역할 전문화(role specialization) 가설 혹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가설로 불리기도 한다.

산)을 전문화하고 교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교환 관계가 혼인의 안정성을 높이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문화-교환 모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현상이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역할 전문화를 약화시킴으로써 (혹은 독립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결혼의 이점을 줄이고 혼인 해체의 위험을 높인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전문화-교환 모델의 높은 활용도와 직관적인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험적 연구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이혼율이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과 혼인의 안정성 간의 연관성에 관한 미시적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Oppenheimer, 1997).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지표들이 혼인의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 중 정적(+) 관계성을 발견한 연구들(Bernardi & Martinez-Pastor, 2011; Kalmijn, Loeve, & Manting, 2007; Kalmijn & Poortman, 2006; South, 2001; South & Spitze, 1986)이 있는 반면 다른 연구들(Cooke & Gash, 2010; Greenstein, 1990; Jalovaara, 2013; Rogers & DeBoer, 2001; Sayer & Bianchi, 2000; Teachman, 2010)은 혼인 해체에 관한 경제활동 지표들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지표들의 효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 비교를 진행한 연구에서도 경제활동 지표의 효과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서구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Cooke 등(2013)의 분석 결과는 기혼 여성의 취업이 혼인 해체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분업 완화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따라 상이함을 시사한다.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미국과 같은 국가의 경우 여성의 취업이 혼인 해체 위험을 증가시키는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비경활 상태에 비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은 혼인 해체의 위험을 유의하게 낮춤을 보고하고 있다.

전문화-교환 모델에 기초한 가설 검증이 주도적이기는 하지만, 혼인 해체와 관련된 미시적 의사결정 연구에서 검토된 또 다른 가설로 경제적 기회 모델(economic opportunity model)이 있다. 전문화-교환 가설이 기본적으로 부부가 모두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전문화에 따른 이점이 감소하고 후속적으로 혼인 해체의 위험이 높아짐을 지적하는 반면 경제적 기회 가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만족스럽지 못한 혼인관계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기회 가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곧바로 혼인 해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한

혹은 행복하지 못한 혼인관계를 해체시킬 개연성을 높임을 주장한다. 전문화·교환 가설이 혼인과 혼인 해체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기회 가설은 기본적으로 「혼인 해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차이가 있다(Ruggles, 1997b). 현재까지 경험적 연구 측면에서 경제적 기회 가설을 검토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 Schoen 외(2002)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행복한 혼인관계의 안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행복하지 못한 혼인관계를 해체시킬 개연성을 높임을 보여 줌으로써 경제적 기회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화·교환 모델의 주도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일관된 지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최근 들어 이론적 관점에서 이 모델의 문제를 분석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우선, 전문화·교환 모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혼인 해체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높아진 소득이 가계의 재정적 긴장(financial strain)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소득효과(income effect)로 불리는 이 이슈는 이미 과거에도 그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지만(Hannan, Tuma, & Groeneveld, 1977, p.1188), 경험적 연구에서는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소득과 혼인 해체 간에 부적(-) 혹은 U-자 형태의 관계를 보고하는 사례 또한 관측된다(예컨대, Greenstein, 1990; Ono, 1998). 전문화·교환 모델이 현실에서 일관된 경험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시간을 가로질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가계경제에 공통적으로 기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여성의 소득활동이 하나의 사회적 규범(norm)으로 인식된다는 점 또한 지적된다(Sayer & Bianchi, 2000). 과거에 비해 성 역할 규범이 완화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소득활동을 하는 혹은 해야 한다는 규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혼인 해체 개연성이 높다는 일부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예컨대, Cooke, 2006; Ono, 1998; Schoen, Rogers & Amato, 2006).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정기원(2004)의 연구는 1970년에서 2002년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이혼율」에 관한 거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는 1인당 국내총생산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높은 모습을 보여 준다.<sup>3)</sup>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이혼율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 박경애(2000)의 연구는 통계청의 센서스와 인구동태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1970년부터 1995년에 걸친 이혼율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1995년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수준별 이혼율(유배우이혼율) 격차를 검토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는 남성은 초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무학,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의 순서를 보였다. 반면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이혼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무학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다소간 불규칙한 패턴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낮고 반면 여성은 그 반대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박경애(2000)의 연구와 달리 미시 자료를 분석한 우해봉(2011)의 연구 또한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리스크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특히 상대적으로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더욱 강한 패턴을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혼인 해체 간의 관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변동함을 보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결혼 초기 단계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개연성이 높아지는 반대의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sup>4)</sup>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 비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들 두 연구의 경우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교육수준만을 고려하고 있다. 박경애(2000)의 연구가 센서스와 인구동태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1995년 기준 교육수준별 유배우이혼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생존분석에 기초한 우해봉(2011)의 연구 또한 교육수준 변수만을 고려할 뿐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경우 혼인 해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혼인 해체가 어느 일방의 특성이나 의사결정의 산물이 아니라 부부가 상호적으로 관여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남편과 아내의 개인 특성들을 아우름과 함께 부부 특성을 동시적으로 검토할

3) 실업률이 이혼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정기원(2004)은 분석 결과가 남성 중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출생코호트와 관련하여 우해봉(2011)의 연구는 개인 단위의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에 기초하여 1930~1949년생과 1950~1960년 출생코호트 집단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 출생코호트를 분석하는 동시에 전향적(prospective) 설계에 기초한 부부 자료를 활용하는 차이가 있다.

필요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부부 관계를 형성하는 남편과 아내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 특성이 혼인 해체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의 선행 연구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까지 진행된 논의의 핵심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근로시간, 근로소득, 남성(남편) 소득 대비 여성(아내)의 소득 혹은 전체 가구소득 대비 여성(아내)의 소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연구들의 경우 경제활동 관련 변수들과 함께 교육수준과 같은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기도 하지만(예컨대, Ono, 1998),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경제활동 관련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 관련 변수들의 역할에 주목하는 한편, 기존 국내 연구들처럼 교육수준의 역할 또한 동시에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 Ⅲ. 자료 및 분석 방법

#### 1. 자료 및 변수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이다. 본 연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99년의 제2차 조사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제18차 조사까지 분석 대상자들을 추적 관찰한다. 첫째, 노동패널의 경우 혼인상태 외에 직전 조사 대비 혼인변동 「여부」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제3차 조사부터이다. 둘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중 시변(time-varying) 변수들의 경우 결과 변수(혼인 해체 여부)와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시차 변수(lagged variable)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1999년 제2차 조사를 기준 시점으로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 또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패널에서 제1차와 제2차 조사 간 표본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 또한 고려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기존 국내 연구들과 달리 부부 자료(couple data)이다. 이를 위해, 기준 시점인 노동패널 제2차 조사의 가구조사에서 부부 관계로 확인되는 개인들 중 개인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들로부터 남성(남편)과 여성(아내) 그리고 부부 정보를 생성한 후에 최종적으로 부부 단위 자료로 재구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혼인 해체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혼뿐만 아니라 별거가 포함되는 개념이다.<sup>5)</sup> 노동패널 제2차 조사에 기초하여 구축된 부부의 수는 총 3,215건이며, 이 중에서 2016년 제18차 조사까지 혼인 해체를 경험한 커플은 총 193건이다 (6.00%).<sup>6)</sup>

혼인 해체와 연관된 변수들로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변수들은 개인 특성, 부부 특성 및 기타 통제 변수들로 구성된다.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개인 특성 변수들로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 연령, 교육수준,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가 사용된다.<sup>7)</sup> 교육수준은 분석 대상 기간 중 관측된 최종 교육 이수기간(년)을 의미하며, 연속변수로 사용된다. 근로소득과 종사상 지위는 시변(time-varying) 변수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2015년 기준 불변가로 환산된 값이며, 종사상 지위는 더미 변수로 상용직과 나머지(비취업 포함) 범주를 구분하였다(상용직 = 1).<sup>8)</sup>

부부 특성 변수들로는 부부의 취업 형태, 배우자 간 연령 격차, 배우자 간 교육수준 격차, 남편과 아내의 근로소득 총액 대비 아내의 근로소득 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결혼 코호트가 사용된다. 우선, 부부의 취업 형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구와 나머지 가구를 구분한다(맞벌이 = 1). 배우자 간 연령 격차의 경우 또한 더미 변수로

---

5) 참고로, 별거의 경우 상대적으로 빨리 재결합 과정을 거치거나 신속히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이혼과 별거를 구분하지 않는다(Amato, 2010). 혼인 해체와 관련된 국내의 경우 또한 이혼과 별거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김수완, 2010; 노혜진, 김교성, 2008; 우해봉, 2011; 윤홍식, 2004).

6)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지닌 사례를 제거하는 대신 다중대체법을 사용하여 보정하는 절차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 중의 하나인 결혼 시점 정보가 결측된 커플의 경우 결측치 보정 대신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혼인 관련 특성 중 재혼 여부가 혼인 해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부부 중 재혼에 해당하는 사례가 매우 적은 관계로 별도의 변수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8)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경우 근로시간 변수의 활용도가 높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 또한 근로시간 변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보다는 소득과 종사상 지위가 노동시장에의 관여 혹은 헌신을 보다 잘 측정하는 변수로 판단하였다. 참고로, 뒤에서 검토하게 되는 단순 모형에서는 근로시간이 혼인 해체와 부적 연관성을 가지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그 효과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구성되는데, 아내의 나이가 남편과 같거나 많은 집단과 나머지 집단을 구분한다(아내 연령  $\geq$  남편 연령 = 0). 남편과 아내의 근로소득 총액 대비 아내 근로소득의 비율은 연속변수로 사용된다. 서열변수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수의 경우 변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매우 만족」과 「만족」 두 범주를 나머지 범주와 구분하며, 남편과 아내의 응답을 조합하여 총 4개의 범주로 구성한다(준거 = 남편 만족 & 아내 만족). 결혼코호트는 부부의 결혼 연도를 지칭하며, 연속변수로 사용된다(1959~1999년). 부부 특성 변수들 중 부부의 취업 형태(맞벌이 여부), 부부 근로소득 총액 대비 아내의 근로소득 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변수는 시변(time-varying) 변수로 구성된다.

위의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 변수들과 함께 일부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분석에 포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 주거 유형, 자녀 수, 실업률 변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한다. 거주 지역은 광역시 여부를 표시하며(광역시 = 1), 주거 유형은 자가 여부를 지칭하는 더미 변수이다(자가 = 1). 자녀 수는 가구에 거주하는 총 자녀 수를 의미하는 연속변수이다. 이혼이 개인이나 부부 특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상황을 일정 수준 통제하기 위해 실업률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변수들 중 시변(time-varying) 변수들에 대해 추가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변 변수들의 경우 시차(lagged) 변수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는 결과 변수인 혼인 해체와 예측 변수들 간의 시간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인 시차 변수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전 조사 시점의 값을 현 조사 시점의 값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기준 시점인 1999년 제2차 조사의 시변 변수 값들은 직전 조사인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사용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접근이 예측 변수들과 결과 변수(혼인 해체) 간의 시간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변수 구성이 인과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항으로 결측치의 처리 문제가 있다. 비록 본 연구가 한국노동패널 제18차 조사까지의 기간을 추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1999~2016년 기간에 걸친 혼인 해체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혼인 해체 발생 건수의 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변수들에서 결측치가 발생한 사례(커플)들을 제거하는(listwise deletion) 대신 결측치

표 1. 분석 표본의 주요 특성

(단위: %, 명)

변수	아내	남편	
개인 특성	혼인 연령(세)	24.08	27.48
	교육수준(년)	10.76	11.96
	근로소득(백만 원)	160.17	276.84
	종사상 지위		
	상용직	14.26	24.84
	비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자, 비취업자)	85.74	75.16
	가족관계 만족도(5점 척도, 평균)	3.52	3.55
부부 특성	취업 형태		
	맞벌이	28.47	
	비맞벌이 (남편 홀벌이/아내 홀벌이/모두 비취업)	71.53	
	연령 격차		
	아내 ≥ 남편	14.93	
	남편 > 아내	85.07	
	교육수준		
	아내 ≥ 남편	56.40	
	남편 > 아내	43.60	
	부부 합산 근로소득 대비 아내 근로소득 비율(평균)	38.81	
결혼 연도(년, 평균)	1977.63		
기타	거주 지역		
	광역시	56.00	
	비광역시	44.00	
	거주 유형		
	자가	64.34	
	비자가	35.66	
	자녀 수(평균)	2.51	
실업률(평균)	3.92		
사례 수	3,215		

주. 1) 시변(time-varying) 변수로 투입된 변수들은 최초 관측 시점(1999년)의 평균값이며, 실업률(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활용)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술평균임.  
 2) 근로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반영한 물가 상승 배수를 적용하여 환산한 값임.  
 3) 결측치가 존재하는 변수들의 경우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통한 보정값의 평균이 사용됨.  
 4) 결혼 연도는 실제 분석 투입 시 최솟값인 1944년을 기준으로 중심이동(centering)을 함.

보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측치 보정 방법은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이다. 다양한 방식의 다중대체법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MICE(Multipl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알고리즘이다(Royston & White, 2011; Van Buuren & Oudshoorn, 1999). MICE 방법을 통해 총 5세트( $m = 5$ )의 보정 데이터를 생성하여 후속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중대체법의 경우 보정 작업에 수반된 불확실성은 복수(multiple)의 자료 세트 생성 과정을 통해 반영되는데, 생성된  $m$  개 자료 세트 간의 변이가 바로 결측치 보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다중대체법을 사용하여  $m$  세트의 보정 자료를 생성하여 후속적인 분석을 진행할 경우 최종 모수 추정치는  $m$ 개 모수 추정치들의 평균이며, 표준오차는 각 보정 세트 내의 분산과  $m$  세트 간에 존재하는 분산으로 구성된다(Rubin's rule)(Rubin, 1987; Schafer, 1997).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정보를 보여 주고 있다.

## 2. 분석 방법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은 이산형(discrete-time) 생존분석(사건사분석)이다. 앞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이산형 생존분석의 특성상 자료 구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자료 구조는 개인 단위(person-level) 자료가 아닌 개인-기간(person-period) 구조를 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간(기간)은 혼인 시점부터 혼인 해체까지의 시간이다(단위 = 년). 다만, 본 연구의 관측 구간(observation window)이 1999년(제2차 조사)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제2차 조사 시점 이전에 혼인을 한 개인들의 경우 좌측 절단(left truncation) 현상이 발생하며, 이들 사례들의 경우(혼인 시점 대신) 제2차 조사 시점부터 혼인 해체 리스크의 측정이 시작된다. 관측의 종료는 혼인 해체가 발생한 부부의 경우 혼인 해체 시점에서, 혼인 해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들의 경우 최종 관측 시점에서 이루어진다(right censoring). 다만, 혼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관측된 레코드(spell/episode)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 55년의 혼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혼인 해체 현상을 추적 관찰한다.<sup>9)</sup>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주 효과(main effect) 모형을 기준으로 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아래의 방정식처럼 나타낼 수 있다. 이산형 생존분석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링크함수는 보(여) 로그-로그(complementary log-log) 링크함수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모수 추정치를 지수화하면 해저드 비(hazard ratio)를 산출할 수 있다. 아래 방정식의 첫 번째 항( $\sum \alpha_j D_j$ )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준선 해저드(baseline hazard)는 더미(dummy) 변수의 형태를 취한다. 기준선 해저드 함수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더미 변수들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건(혼인 해체)의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총 8개의 더미를 사용하여 기준선 해저드를 구성하였다. 두 번째 항( $\sum \alpha_m X_{i,..,m}$ )은 시불변 변수들(time-invariant covariates)을, 세 번째 항( $\sum \alpha_n Z_{i,j-1,n}$ )은 시변 변수들(time-varying covariates)의 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분석 결과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이러한 주 효과 모형(main effect model)에 기초하여 추가적으로 예측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 모형 그리고 예측 변수들과 시간(혼인 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로 표상되는 비비례적 해저드 모형(non-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비비례적 해저드 모형(non-proportional hazard model)에서는, 아래의 마지막 항처럼, 더미 변수를 사용하는 대신 시간(혼인 기간)을 1차 함수 형태의 연속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모형의 간명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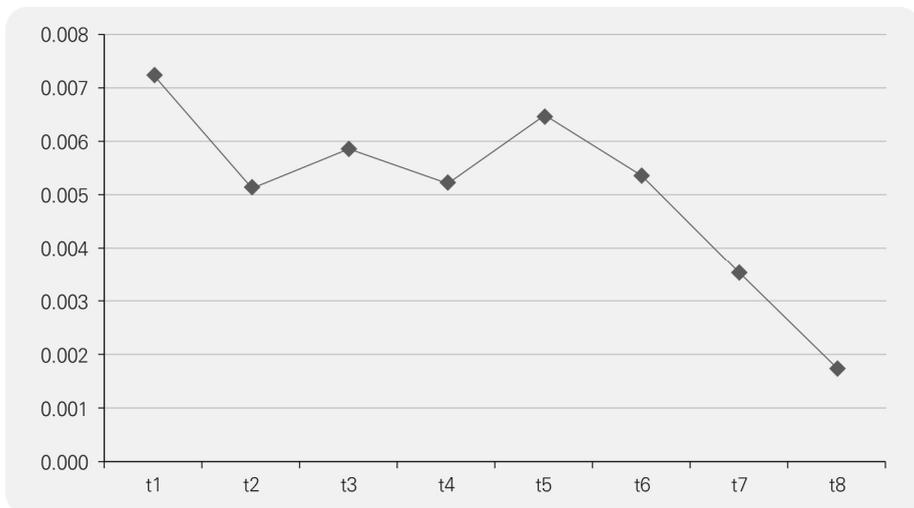
$$\log[-\log(1 - h(t_{i,j}))] = \sum^j \alpha_j D_j + \sum^m \alpha_m X_{i,..,m} + \sum^n \alpha_n Z_{i,j-1,n} + \sum^p \alpha_p X_{i,..,p} \times Time_j$$

9) 본 연구가 1999년 기준 유배우자를 추적하는 관계로 혼인 기간이 4년 미만인 부부의 비중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혼인 기간이 4년 미만인 레코드를 분석 대상 자료에서 제외시켰다.

## IV. 분석 결과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표 2>는 총 8개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모형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선 해저드 곡선(baseline hazard function)을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터미 변수 형태의 기준선 해저드를 구성하고 있는데, 모형 1의 모수 추정치들을 역변환(inverse transformation)하면 혼인 기간(터미)별 해저드 값을 산출할 수 있다 ( $h_j = 1 - \exp(-\exp(\alpha_j))$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이 이산형 생존분석이라는 점에서 해저드(hazard)는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 개념에 해당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해저드는 혼인 후 (혹은 최초 관측 후) 해당 시점까지 혼인 해체를 경험하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시점에서 혼인 해체를 경험할 확률을 지칭한다. [그림 1]이 분석 표본에 기초하여 추정된 기준선 해저드의 패턴을 보여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기간(혼인 기간 4~10년)의 해저드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며, 이후 증감을 반복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기준선 해저드 곡선(모형 1 기준)



<표 2>의 모형 2는 기준선 해저드와 함께 개인 특성 중 여성(아내)의 개인적 특성(결혼 연령, 교육수준,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을 포함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는 결혼 연령의 효과만이 유의함을 보여 준다. 인구학적 변수인 결혼 연령은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를 경험할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교육수준,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상용직 여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참고로, 기준선 해저드와 함께 이들 개인 특성 변수 각각을 투입할 경우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다른 변수들과 동시적인 모형을 구축할 경우 모형 2와 같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적으로, 여성(아내)의 사회경제적 특성들 중 종사상 지위(상용직 여부)의 효과는, 다른 변수들과 달리, 비상용직에 비해 상용직의 혼인 해체 개연성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모형 3은 개인 특성 중 남편의 특성을 포함한 모형이다. 모형 2와 마찬가지로 남성(남편)의 개인 특성들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결혼 연령은 혼인 해체와 부적(-) 연관성을 지님을 살펴볼 수 있다. 모형 2와 달리 모형 3은 남성의 개인 특성 중 교육수준의 효과가 유의함을 보여 주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개연성이 낮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모형 4는 개인 특성 중 아내 특성과 남편 특성을 동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는 남편과 아내의 개인 특성을 동시적으로 고려할 경우 아내의 결혼 연령과 남편의 교육수준이 혼인 해체와 유의하게 연관됨을 보여 주고 있다. 남편 교육수준 모수 추정치 -0.1026을 지수화하면, 다른 개인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성(남편)의 교육수준이 1년 증가할 때 혼인 해체 해저드가 각 기간별로 10% 정도 감소함을 살펴볼 수 있다.

모형 5는 기준선 해저드와 함께 부부 특성 변수들(맞벌이 여부, 연령 격차, 교육수준 격차, 부부 합산 근로소득 대비 아내 근로소득의 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결혼 연도)을 고려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는 부부 특성 변수 중에서 가족관계 만족도 변수의 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 주고 있다. 준거 범주인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경우에 비해 남편-불만족/아내-만족 범주와 남편과 아내 모두 불만족 범주에 속할 경우 혼인 해체를 경험할 개연성이 유의하게 높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남편-불만족/아내-만족 범주의 혼인 해체 해저드가 1.8배,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관계에 불만족할 경우 혼인 해체 해저드가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 6은 남편과 아내의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을 모두 포함한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아내의 개인 특성으로는 결혼 연령, 남편의 개인 특성으로는 교육수준의 효과가 유의함을 살펴볼 수 있다. 부부 특성 변수들만을 고려한 모형 5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만족도 변수의 효과 또한 유의하지만, 남편과 아내 모두 만족인 범주에 비해 남편과 아내 모두 불만족인 범주의 혼인 해체 해저드가 유의하게 높음을 살펴볼 수 있다. 모형 5에 비해 모형 6에서 나타나는 주된 차이 중의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개인 특성들을 통제할 경우 부부 합산 근로소득 대비 아내의 근로소득 비율의 효과가 유의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부부 합산 근로소득 대비 아내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를 경험할 개연성이 유의하게 낮음을 보여 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부부 특성 중에는 아내의 연령이 남편과 같거나 높은 집단의 혼인 해체 해저드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대략 8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exp(.5972) - 1) \times 100$ ). 모형 7은 남편과 아내의 개인 및 부부 특성과 함께 기타 통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모형에 해당한다. 기타 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분석 결과에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음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로, 일부 통제 변수들의 효과 또한 유의한데, 자가를 보유할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개연성이 낮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변수들의 주 효과(main effect)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여성(아내) 특성의 경우 결혼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의 효과만이 유의할 뿐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 관련 변수들의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남성(남편)의 개인 특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수준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기존 국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남성(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개연성이 낮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부부 특성 변수 중에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혼인 해체와 유의하게 연관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남편과 아내 모두 불만족한 집단의 혼인 해체 리스크가 유의하게 높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부부 특성 중 연령 격차 및 부부 합산 근로소득 대비 아내 근로소득의 비율 변수의 효과가 유의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의 효과가 혼인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가의 문제를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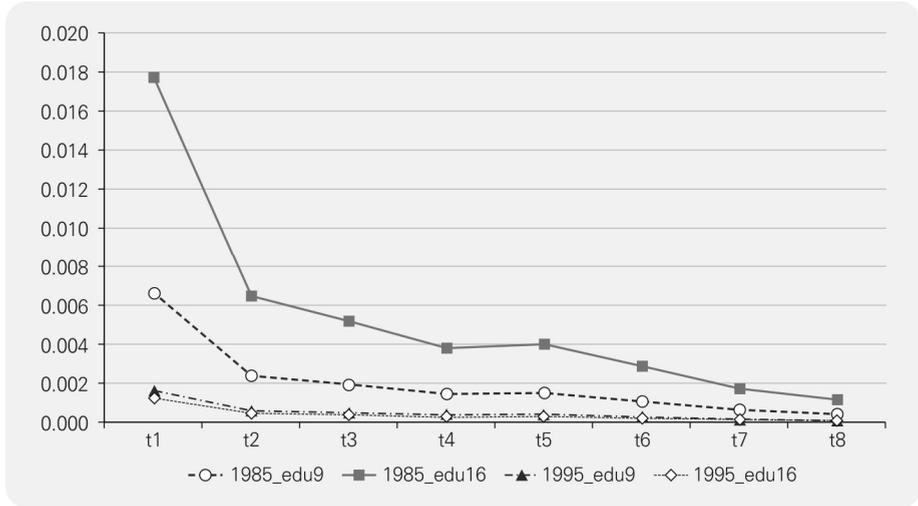
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모형 2에서 모형 7은 모두 비례위험 모형 (proportional hazard model)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혼인 해체에 대한 예측 변수들의 효과가 시간(혼인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다는 가정에 기초한 모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 변수들의 효과가 시간(혼인 기간)의 흐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개연성을 고려하는 비비례적 해저드 모형(non-proportional hazard model) 또한 충분히 검토 가능한 모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특히 사회경제적 특성들과 가족관계 만족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의 효과가 시간(혼인 기간)의 경과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가지는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론적 개연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합을 검토하였지만, 예측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예측 변수들과 시간(혼인 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다양한 모형들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장 복잡한 모형의 분석 결과가 모형 8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8에서 제시된 상호작용 효과는 아내의 교육수준과 결혼코호트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며, 이 또한 혼인 기간에 따라 변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형 8에서 제시된 3중 상호작용 효과를 모수 추정치를 통해 충분히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결혼코호트와 교육수준을 추출하여 이들의 전형적인 변화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그림 2]는 1985년 및 1995년 결혼코호트 그리고 교육 이수기간이 9년(중졸)과 16년(대졸)에 해당하는 4 집단의 혼인 기간 경과에 따른 혼인 해체 해저드의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sup>10)</sup> 보다 구체적으로, 1985년 결혼코호트의 경우 대졸 여성의 혼인 해체 리스크가 중졸 여성에 비해 높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졸 여성에 비해 대졸 여성의 혼인 해체 리스크가 보다 가파르게 감소함으로 인해 교육수준 간 격차가 축소되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다. 결혼코호트를 가로질러 혼인 해체 리스크가 감소하는 패턴이 관측되는데, 1985년 결혼코호트와는 반대로, 1995년 결혼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 간 혼인 해체 리스크가 역전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결국 모형 8은 과거 결혼코호트의 경우 고학력 여성의 혼인 해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지

10) [그림 2]는 다변량 분석 결과를 2차원 그래프로 전환한 것으로 핵심 변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특정 값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그림 2]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해저드의 절댓값이 아니라 상대적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준거 집단의 변화는 집단 간 상대적 격차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clog-log 해저드 기준).

만, 최근 결혼코호트로 진행될수록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어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가 역전되는 상황까지 관측됨을 보여주고 있다.<sup>11)</sup>

그림 2. 여성의 교육수준과 결혼코호트 그리고 혼인 기간 간의 관계(모형 8 기준)



11) 참고로, 1995년 결혼코호트의 경우 실제 관측될 수 있는 혼인 기간은 다섯 번째 더미(t5)까지의 기간이지만, [그림 2]는 분석 결과의 비교 차원에서 전체 혼인 기간 동안의 추정치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표 2. 이산형 생존모형(clog-log)의 추정 결과

항목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혼인기간</b>				
4~10년 미만	-4.9265***	-1.9539**	-1.7068*	-1.2241
10~15년 미만	-5.2674***	-2.3447**	-2.0808**	-1.6100*
15~18년 미만	-5.1365***	-2.2634**	-1.9979**	-1.5320
18년 이상 20년 미만	-5.2516***	-2.4123**	-2.1476**	-1.6807*
20년 이상 22년 미만	-5.0375***	-2.2397***	-1.9757**	-1.5112
22년 이상 25년 미만	-5.2275***	-2.4749***	-2.2124**	-1.7404*
25년 이상 30년 미만	-5.6411***	-2.9676***	-2.7102***	-2.2302**
30년 이상	-6.3456***	-3.9230***	-3.6844***	-3.1785***
<b>아내 특성</b>				
결혼연령		-.0982***		-.0643*
교육수준		-.0436		.0382
근로소득		-.0005		-.0004
상용직		.4252		.3900
<b>남편 특성</b>				
결혼연령			-.0718**	-.0438
교육수준			-.0887***	-.1026**
근로소득			-.0007	-.0006
상용직			.2742	.2244
<b>부부 특성</b>				
취업 형태(맞벌이=1)				
연령 격차(아내 ≥ 남편=1)				
교육수준 격차(아내 ≥ 남편=1)				
아내 근로소득 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아내 만족, 남편 만족)				
아내 만족, 남편 불만족				
아내 불만족, 남편 만족				
아내 불만족, 남편 불만족				
결혼코호트				
<b>기타</b>				
거주 지역(광역시=1)				
주거 유형(자가=1)				
자녀 수				
실업률				
<b>상호작용</b>				
아내 교육수준×결혼코호트				
아내 교육수준×혼인기간				
아내 교육수준×결혼코호트×혼인기간				

주: N=50,428(Person-Period Data); \* p<.05 \*\* p<.01 \*\*\* p<.001.

표 2. 이산형 생존모형(clog-log)의 추정 결과(계속)

항목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b>혼인기간</b>				
4~10년 미만	-4.8208***	-2.6257**	.4357	.3342
10~15년 미만	-5.1847***	-2.9682**	-.0659	-.6789
15~18년 미만	-5.0620***	-2.8473**	-.0169	-.9049
18년 이상 20년 미만	-5.1961***	-2.9784**	-.1961	-1.2109
20년 이상 22년 미만	-4.9896***	-2.7749**	-.0319	-1.1527
22년 이상 25년 미만	-5.1951***	-2.9646**	-.2846	-1.4928
25년 이상 30년 미만	-5.6273***	-3.3946***	-.7890	-2.0011
30년 이상	-6.4138***	-4.1584***	-1.7995	-2.4205
<b>아내 특성</b>				
결혼연령		-.1181**	-.1182**	-.1164**
교육수준		.0828	.0861	.9124***
근로소득		.0005	.0005	.0004
상용직		.4774	.4824	.4774
<b>남편 특성</b>				
결혼연령		-.0075	-.0058	-.0057
교육수준		-.1318**	-.1337**	-.1247*
근로소득		-.0014	-.0014	-.0014
상용직		.0652	.0704	.1088
<b>부부 특성</b>				
취업 형태(맞벌이=1)	.2019	.0900	.1045	.0570
연령 격차(아내≥남편=1)	.3387	.5972**	.5842*	.5977*
교육수준 격차(아내≥남편=1)	-.2215	.3207	.3308	.2807
아내 근로소득 비율	-.3492	-1.0406*	-1.0458*	-1.0080
가족관계 만족도 (아내 만족, 남편 만족)				
아내 만족, 남편 불만족	.5664*	.4892	.4763	.4524
아내 불만족, 남편 만족	.4610	.4022	.3860	.3750
아내 불만족, 남편 불만족	1.2531***	1.1430***	1.1162***	1.1049***
결혼코호트	-.0067	.0199	-.0168	.0263
<b>기타</b>				
거주 지역(광역시=1)			-.0175	-.0712
주거 유형(자가=1)			-.3235*	-.3843*
자녀 수			-.1864	-.1199
실업률			-.1921*	-.3708***
상호작용				
아내 교육수준×결혼코호트				-.0187***
아내 교육수준×혼인기간				-.0183**
아내 교육수준×결혼코호트×혼인기간				.0003**

주: N=50,428(Person-Period Data); \* p<.05 \*\* p<.01 \*\*\* p<.001.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혼인 해체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는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여 남편과 아내의 개인 특성 정보를 아우르는 한편 부부 특성 정보 또한 고려하였다. 또한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제한된 지표를 사용한 기존 국내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는 교육, 종사상 지위, 소득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제활동 관련 지표들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 부부 전체 근로소득 대비 아내 근로소득 비율, 취업 형태(맞벌이 여부) 등 다양한 개인 및 부부 특성들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소득이나 종사상 지위 등 경제활동 관련 변수들이 혼인 해체와 유의하게 연관된 경험적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혼인 해체 현상의 경우 교육수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유의하게 낮은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교육수준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은 혼인 기간이나 결혼코호트에 따른 유의미한 변동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여성의 경우 분석 결과는 교육수준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이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과거 결혼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높은 패턴을 보였지만, 최근 결혼코호트로 진행될수록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는 혼인 기간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는 혼인 기간의 초기 시점에서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혼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부부 특성 변수들의 경우 교육수준 격차, 연령 격차, 부부 합산 근로소득 대비 아내 근로소득의 비율, 취업 형태(맞벌이 여부)와 같은 변수들이 혼인 해체와 유의하게 연관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최종 모형 기준). 대신 분석 결과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다른 모든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혼인 해체와 유의하게 연관된 요인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부부에 비해 남편과 아내 모두 불만족한 부부의 혼인 해체 리스크가 뚜렷하게 높은 패턴을 보여 주었다.

분석 결과는 또한 부부 특성 중 남편에 비해 아내의 나이가 같거나 높은 집단의 혼인 해체 리스크가 유의하게 높은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연령 격차가 정확히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혼인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남성(남편)의 교육수준이 혼인 해체와 부적(-)으로 연관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기존 전문화-교환 모델이 상정하는 가설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sup>12)</sup>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에서는 이 가설에 대한 지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여성의 교육수준 또한 결혼코호트 및 혼인 기간과 복잡하게 연계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일면적으로 전문화-교환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부 특성으로 검토된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혼인 해체와 부적(-) 관계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 변수들이 불만족한 가족관계의 경우에 혼인 해체 리스크를 유의하게 높인다는 경험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자원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sup>13)</sup>

본 연구가 교육수준과 혼인 해체 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기제는 분명하지 않다. 기존 국내 연구 중 박경애(2000)는 혼인 해체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가 성별로 상이한 것과 관련하여 성 역할 규범의 영향을 지적한다. 여성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통적 성 역할 규범과 배치되기에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불행한 결혼을 인내하는 대신 이혼을 선택할 개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경제적 기회 가설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교육수준과 달리 경제활동 변수들과 혼인 해체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국내 연구들로 이성용(2013)과 이성용·황명진(2014)은 이혼이나 비혼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혁신전파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혁신전파이론에 의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이혼과 같은 혁신적 행위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수용되

12) 여성의 경제활동과 혼인 해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들에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전문화-교환 모델은 다른 한편으로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높음을 시사한다(Ono, 1998). 경험적 연구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여성에 비해,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혼인 해체 간의 관계가 보다 일관된 측면이 있다.

13)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 만족도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료가 활용 가능할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 대신 부부관계 만족도가 보다 바람직한 변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며, 후속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까지 전파되어 보편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육수준과 혼인 해체 간의 관계는 초기의 정적(+) 관계에서 시작하여 혼인 해체 관련 규범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보편화되는 후기 단계에서는 부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비록 혁신전파이론이 다른 경제활동 변수들과 구분되는 교육수준의 독특한 역할에 주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육수준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이 성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교육수준을 포함하여,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혼인 해체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기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단순히 소득이나 종사상 지위 혹은 취업 형태와 같은 정보만을 통해 여성(아내)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조건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가 존재할 경우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모형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했지만, 소득이나 종사상 지위와 같은 변수들은 단순히 혼인 해체에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신 쌍방향적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 또한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해봉은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통계학 석사와 사회학(인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구학과 소득 보장 분야이다.  
(E-mail: haebongwoo@kihasa.re.kr)

장인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계량경제, 통계분석방법론이다.  
(E-mail: sesscis@kihasa.re.kr)

## 참고문헌

- 김수완. (2010). 결혼해체 이후 삶의 변화: 경제적 상태와 생활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여성학*, 26(1), pp.35-67.
- 김수정. (2007).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연구*, 7(1), pp.93-133.
- 김혜영, 변희순, 윤희식. (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pp.37-63.
- 노혜진, 김교성. (2008).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종단연구, *사회보장연구*, 24(4), pp.167-196.
- 박경애. (2000).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 의미, 1970~1995, *한국인구학*, 23(1), pp.5-29.
- 변희순, 김혜영, 윤희식, 한지숙. (2006).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우해봉. (2011). 한국인의 성별 및 교육수준별 이혼 패턴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8(4), pp.139-163.
- 윤희식. (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pp.5-27.
- 이성용. (2013).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적 비혼구성비와 이혼구성비 분석: 1995~2010, *한국인구학*, 36(4), pp.1-24.
- 이성용, 황명진. (2014). 교육수준에 따른 비혼구성비 추세 분석: 서울시 강남과 비강남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25(1), pp.15-34.
- 이현송. (2008). 이혼의 경제적 충격의 추정, *가족과 문화*, 20(1), pp.161-185.
- 정기원. (2004). 사회경제 상황이 이혼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시계열 자료의 분석, 1970-2002, *한국인구학*, 27(1), pp.57-80.
- 통계청. (2016a). 2016 일·가정양립 지표. 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6b). 2016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7a).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에서 2017.7.25. 인출.
- 통계청. (2017b).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에서 2017.7.25. 인출.

- 통계청. (2017c).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Amato, P. R. (2010). Research on divorce: Continuing trends and new develop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pp.650-666.
- Becker, G. S. (1974). *A theory of marriage*. In T. W. Schultz(Ed.),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pp.299-34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rnardi, F., & Martinez-Pastor, J.-I.(2011). Divorce risk factors their variations over time in Spain. *Demographic Research*, 24(31), pp.771-800.
- Cooke, L. P. (2006). “Doing” gender in context: Household bargaining and risk of divorce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2(2), pp.442-472.
- Cooke, L. P., Erola, J., Evertsson, M., Gahler, M., Harkonen, J., Hewitt, B., Jalovaara, M., Kan, M.-Y., Lyngstad, T. H., Mencarini, L., Mignot, J.-F., Mortelmans, D., Poortman, A.-R., Schmitt, C., & Trappe, H. (2013). Labor and love: Wives’ employment and divorce risk in its socio-political context. *Social Politics*, 20(4), pp.482-509.
- Cooke, L. P., & Gash, V. (2010). Wives’ part-time employment and marital stability in Great Britain, West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Sociology*, 44(6), pp.1091-1108.
- Greenstein, T. N. (1990). Marital disruption and th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pp.657-676.
- Isen, A., & Stevenson, B. (2010). *Women's education and family behavior: Trends in marriage, divorce, and fertili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Jalovaara, M. (2013). Socioeconomic resources and the dissolution of cohabitations and marriag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9(2), pp.167-193.
- Martin, S. P. (2006) Trends in marital dissolution by women's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Research*, 15(20), pp.537-560.
- Kalmijn, M., Loeve, A., & Manting, D. (2007). Income dynamics in couples and the dissolution of marriage and cohabitation. *Demography*, 44(1), pp.159-179.

- Kalmijn, M., & Poortman, A.-R. (2006). His or her divorce? The gendered nature of divorce and its determinant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2(2), pp.201-214.
- Lee, R. (2003). The demographic transition: Three centuries of fundamental chang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7(4), pp.167-190.
- Ono, H. (1998). Husbands' and wives' resources and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3), pp.674-689.
- Oppenheimer, V. K. (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pp.431-453.
- Raley, R. K., & Bumpass, L. (2003). The topography of the divorce plateau: Levels and trends in union stability in the United States after 1980. *Demographic Research*, 8(8), pp.245-259.
- Raymo, J. M., Iwasawa, M., & Bumpass, L. (2004). Marital dissolution in Japan: Recent trends and patterns. *Demographic Research*, 11(14), pp.395-420.
- Reher, D. (2011).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supplement), pp.11-33.
- Rogers, S. J., & DeBoer, D. D. (2001). Changes in wives' income: Effects on marital happin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risk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2), pp.458-472.
- Royston, P., & White, I. R. (2011). Multipl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MICE): Implementation in Stata.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5(4), pp.1-20.
- Rubin, D. B. (1987). *Multiple Imputation for Nonresponse for Surveys*. New York: John Wiley & Sons.
- Ruggles, S. (1997a). The rise of divorce and separation in the United States, 1880-1990. *Demography*, 34(4), pp.455-466.
- Ruggles, S. (1997b). Reply to Oppenheimer and Preston. *Demography*, 34(4), pp.475-479.
- Sayer, L. C., & Bianchi, S. M. (2000).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and the probability of divorce: A review and reexamin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1(7), pp.906-943.

- Schafer, J. L. (1997). *Analysis of Incomplete Multivariate Data*. London: Chapman & Hall/CRC.
- Schoen, R., Astone, N. M., Rothert, K., Standish, N. J., & Kim, Y. J. (2002). Women's employment, marital happiness, and divorce. *Social Forces*, 81(2), pp.643-662.
- Schoen, R., Rogers, S., & Amato, P. (2006). Wives' employment and spouses' marital happiness: Assessing the direction of influencing using longitudinal couple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27(4), pp.506-528.
- South, S. J. (2001). Time-dependent effects of wives' employment on marital diss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1), pp.226-245.
- South, S. J., & Spitze, G. (1986). Determinants of divorce over the marital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4), pp.583-590.
- Teachman, J. (2010). Wives' economic resources and risk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Issues*, 31(10), pp.1305-1323.
- Van Buuren, S., & Oudshoorn, K. (1999). *Flexible multivariate imputation by MICE*. Leiden: TNO Report.

# Husbands' and Wives' Socioeconomic Resources and Marital Dissolution

**Woo, Haeb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hang, Insu**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and wives' socioeconomic resources and marital dissolution. Compared to prior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husbands' and wives' individual and couple characteristics using longitudinal couple data compiled from the KLIPS. Overall, despite the wide range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vestigated, such as education, earnings, work status, ratio of wives' earnings relative to total couple earnings, dual-earner status, only limited variables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marital dissolution. First,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this study finds that husbands' educa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rital dissolution. Second, with respect to wives' socioeconomic resources, this study finds that the effect of wives' education is contingent upon marital cohorts and marital duration. The data indicate that the positive impact of wives' education becomes weaker across marriage cohorts and marital duration.

---

**Keywords:** Couple, Education, Economic Activities, Marital Dissolution